

[국토부] 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

1 현황 및 문제점

- 자동차 중심의 국내여행*으로 관광지 교통 혼잡 문제 발생

* 국민 국내관광 교통수단 : 자동차 73%, 버스 5.7%, 철도 3.1% 등

- 고속철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, 경부·호남선 위주 서비스로 인해 다른 지역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열악

* 고속철도 이용객수(천만명) : ('12) 5.2 → ('13) 5.5 → ('14) 5.7 → ('15) 6.1 → ('16) 6.6

-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·제주 중심*의 관광 형태를 보이고 있어,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 대책 필요

* 外人 방문비중('16년, %) : (서울) 78.7 (제주) 18.3 (부산) 10.3 (경남) 2.3 (전남) 1.8 등

2 개선방안

대중교통 중심의 여행문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間·지역內 대중교통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

① 관광지 접근성 제고

- (고속철도망 확충 등) 고속철도 인프라 신설·개량으로 강원권 접근성을 개선*하고, 호남 2단계 고속철도 건설 조속 추진

* 인천~서울~강릉간 고속철도 인프라 신설·개량(경강선 개통, '17.12.22)

- 서해·중앙·경전선 등 일반 간선 철도 고속화*도 차질없이 추진

* 시설개량 및 신형열차 도입으로 시속 200km/h 이상의 속도 확보

- (진입도로 연결) 권역별 관광지 진입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,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대상으로 쉼터 조성 등 투자 확대('18년~)

② 지역內 접근성 제고

- (고속도로 환승시설 확대) 고속도로 시설물(간이정류소, 휴게소 등)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 연계·환승시설을 확대 추진
 - * (기존) ex-HUB 3개소(동천역·옥천나들목·가천대역), 환승휴게소 4개소(정안·선산·횡성·인삼랜드) → (추가) ex-HUB 1개소(섬진강휴게소, '17.12월)
- (연계 교통체계 구축) 주요 철도역사에 카셰어링, 렌터카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역사에서 숙박·관광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개선
 - KTX(일반열차 포함)와 자체 운영 시티투어 버스를 결합한 관광상품(레일시티투어) 개발로 지역 관광지 연계성 강화
- (교통 O2O 서비스) 지역기반 O2O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소규모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합차(택시, 렌터카) 중개서비스를 대중교통 보완 수단으로 활용

③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

- (원티켓 올패스 운영) 하나의 열차승차권으로 렌터카, 숙박, 주요관광 입장권을 모두 예약·이용할 수 있는 예·발매시스템 개발·구축
 - * 코레일톡(APP)에서 렌터카·숙박·입장권 등을 한 번에 통합 구매하여 이용
- (항공-철도 연계발권 시스템 구축) 항공권·철도티켓 동시발권 및 수하물 연계배송 등 항공·철도 연계수송 체계 구축 추진

3 향후계획

- (접근성 제고) 경강선 KTX 개통('17.12), 일반철도 고속화('18~),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고시 등('18년~)
 - 고속도로 환승시설 확대('17.12~), 레일시티투어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('18.1~), 교통 O2O 서비스 확대 추진('17.12~)
- (편의성 제고) 원티켓 올패스 서비스 2단계(렌터카 등) 오픈('18.1월~), 철도공사와 핀에어간 항공-철도연계발권 시스템 구축·운영('18.상~)